

2023. 8. 21(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0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서울공예박물관
교육홍보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관장	김수정	6450-7010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6450-7070
관련홈페이지 (메뉴)	https://craftmuseum.seoul.go.kr/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신청	

‘장석주 시인은 공예를 어떻게 바라볼까?’

서울공예박물관-한국조형디자인협회 공예강좌 공동 개최

- 서울공예박물관과 한국조형디자인협회가 공예 강좌 공동 기획, 개최 이어와
- 그 여섯째로 인문학 관점으로 공예를 보는 장석주 시인의 <사물의 인문학> 강좌 예정
- 8월 24일(목) 오후 1시 서울공예박물관 강당에서 개최 및 21일(월) 홈페이지 사전 접수
- 장석주 시인의 사물이야기로 공예에 대한 풍부한 생각과 영감을 얻어갈 기회

-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한국조형디자인협회(이사장 조혜영)는 공예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예 문화 진흥을 위해 2023년 2월에 협약을 맺고, 그 첫 사업으로 공예강좌를 공동으로 기획해 열어 오고 있다. 그간 공예의 영역과 공예 교육, 공예 마케팅과 상품 기획, 특별전 《나전장의 도안실 - 그림으로 보는 나전》 연계 등을 주제로 강좌가 진행되었다.
- 그 여섯 번째 강좌는 장석주 시인의 <사물의 인문학>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 공예를 만나볼 예정이다. 8월 24일 13시부터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으로 접수를 받는다.
- 국내 최초의 공립 공예박물관인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의 다양한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확산하고자 다양한 융복합 프로그램을 펼쳐왔다. 특히 공예를

음악과 접목해 악기를 만드는 장인의 공예 이야기와 악기의 문화사, 공연 등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었던 <공예:가 음악을 만나다>가 대표적이다.

- 이번 강좌를 맡아줄 장석주 시인은 남들은 눈여겨보지 않았던 익숙한 사물을 예리하고 깊이 있는 감각으로 주목해 왔다. 장석주 시인의 저서 「철학자의 사물들」에는 삶과 죽음, 주체와 타자, 꿈과 기대, 욕망과 무의식, 기호와 교환 등 사물들에 대한 그의 사유가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 장석주 시인은 이미지나 환영이 아닌 물성으로 구현된 확실성 속에서 사물이 실체를 드러내고, 사물의 표면과 질감은 그 자체로 깊이를 드러낸다고 보았다. 시인이 말하는 사물 그 자체로의 깊이가 드러나기 위한 바탕에는 공예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번 공예강좌에서 장석주 시인을 통해 공예를 색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조혜영 한국조형디자인협회 이사장은 “장석주 시인의 이번 강좌가 공예의 가치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시인의 안목으로 담아내는 사물과 공예이야기가 시민들에게는 일상에서 흔치 않은 문화생활이 될 것”으로 보았다.
-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공예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이번 강좌가 공예를 융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관점과 영감을 주며 공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경험과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서울공예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을 하면된다.
<https://craftmuseum.seoul.go.kr> (8월 21일 13시 예약 개시, 접수문의 : 02-6450-7075)

- 붙임 1. 장석주 시인 사진 및 약력
2. 공예강좌 포스터 이미지

붙임 1. 장석주 시인 사진 및 약력

강연자 : 장석주 시인



장석주 시인 약력

1955년 논산에서 태어나고, 1975년 [월간문학] 신인상에 시가 당선하고, 1979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각각 시와 문학평론이 동시 당선했다.

‘고려원’ 편집장을 거쳐 ‘청하’출판사를 창업해서 15년간을 출판 편집발행인으로 일했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국악방송에서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일요일과 나쁜 날씨』, 『불면의 등불이 너를 인도한다』, 『이상과 모던보이들』, 『가만히 혼자 웃고 싶은 오후』, 『일요일의 인문학』,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철학자의 사물들』, 『글 쓰기는 스타일이다』, 『단순한 것이 아름답다』, 『시간의 호젓한 만에서』 등 100여 종이 있다.

애지문학상, 질마재문학상, 영랑시문학상, 편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붙임 2. 공예 강좌 포스터 이미지.

공예 강좌 포스터



끝.